

보도시점 바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 2026. 9. 15.(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손잡고 물·기후 분야 기업 ESG 경쟁력 강화 나선다

- 60년 축적된 물 데이터와 글로벌 환경 네트워크 결합, 독자적 ESG 지표 발굴
- 물관리 성과 계량화로 민간 친환경 투자 견인하고 글로벌 규제 대응 지원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9월 14일 서울 강남구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회의실에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물·기후 분야 ESG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공시 의무화를 비롯한 공급망 실사 등 강화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 속에서 국내 기업의 종합적인 ESG 대응 역량을 높이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물관리와 기후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내 산업계의 수출 경쟁력을 전방위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전 세계 2만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글로벌 환경 정보 공개 플랫폼인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한국위원회 사무국이자, 글로벌 RE100의 공식 파트너로 폭넓은 국내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60년 가까이 축적된 한국수자원공사의 방대한 물 데이터뿐 아니라 수력·수상태양광 등 국내 최대 청정에너지 인프라와 관리 노하우가 결합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외 기업에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독자적 ESG 관리 지표를 함께 발굴해 나간다. 기업들이 해외 투자자나 평가기관으로부터 요구받는 물 리스크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는 표준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나아가 기업의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전환 등 기후변화 대응 전반도 함께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사의 물관리 과정에서 창출된 환경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계량화하여 금융시장에서 신뢰할 만한 지속가능금융 관련 지표로 발전시킨다. 하천유역 보전과 수자원 확보 성과가 데이터 지표로 전환되면 민간의 친환경 ESG 투자를 한층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들은 관련 지표를 활용해 사용한 물 이상을 자연에 복원하는 워터 포지티브(Water Positive) 성과를 대외적으로 제시하고, 지속가능금융 생태계 안에서 자금조달과 규제 대응이라는 실익을 얻을 수 있다.

협약 주요 내용은 ▲ Water Positive 등 지속가능한 물관리 및 글로벌 ESG 대응 ▲ 탄소중립·RE100 등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 지원 ▲ 물관리 성과의 가치화 및 지속가능금융 연계 ▲ 공공·기업 물 정보의 연계·활용과 물 리스크 분석 ▲ ESG 정책·연구 및 기업·금융기관 네트워크 협력 ▲ 글로벌 이니셔티브 연계 및 국내외 우수사례 확산 등이다.

구자영 한국수자원공사 기획부문장은 “이번 협약은 거세지는 글로벌 ESG 규제 속에서 국내 산업계가 친환경 경쟁력을 확보하는 실질적인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국내 최초 글로벌 RE100 달성 기업으로서 공사가 축적해 온 물관리 성과를 신뢰도 높은 금융·평가 지표로 연결하여 민간기업의 ESG 투자유치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관련 사진 2매(별첨). 끝.

담당 부서	신성장전략단 기후위기대응부	책임자	부 장	진성원 (042-629-2380)
		담당자	과 장	정현영 (042-629-2386)



[사진] 1. 9월 14일 서울 강남구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구자영 한국수자원공사 기획부문장(사진 오른쪽)이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사진 왼쪽)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날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물·기후 분야 ESG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공시 의무화를 비롯한 공급망 실사 등 강화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 속에서 국내 기업의 종합적인 ESG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사진] 2. 9월 14일 서울 강남구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양 기관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오른쪽 다섯 번째부터 구자영 한국수자원공사 기획부문장,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